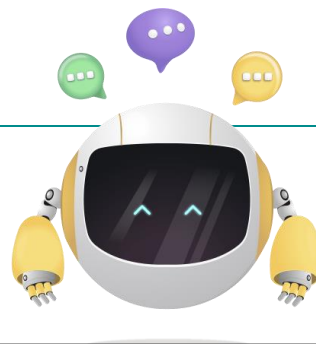




마벨, 구글 TPU 생태계 진입

Tech&Stock Weekly | 2026.08.21

Analyst 김재임 jamie@hanafn.com

Analyst 김시현 sihyun_kim@hanafn.com

RA 송종원 1223sjw@hanafn.com

주요 이슈 점검

알파벳(GOOG.LUS): 마벨, 구글 TPU 생태계 진입

- 마벨과 구글이 맞춤형 반도체 개발 협력을 확대. 마벨은 구글에 자사 주식 최대 5,897만907주를 주당 206.58달러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전량 행사 시 구글이 지급하는 총매입대금은 약 121억8,000만 달러. 전체 주식 중 136만867주는 계약 체결 후 1년 동안 분기별로 균등하게 권리 확정. 나머지 약 5,761만주는 구글의 마벨 제품 구매실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권리 확정. 구매실적 연동 물량은 총 240개 구간으로 분할. 마벨이 구글 관련 맞춤형 제품 매출 5억 달러를 인식할 때마다 한 구간의 주식매수권이 확정되는 방식. 모든 주식매수권이 확정되려면 구글 관련 누적 맞춤형 반도체 매출이 약 1,200억 달러에 도달해야 하는 구조. 측정 기간은 마벨의 2027회계연도 3분기부터 2033회계연도 말까지
 - 협력 범위는 구글 TPU 생태계에 연결되는 맞춤형 반도체 전반. AI 추론 가속기와 스토리지 제어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제어기, 메모리 인터페이스 제어기, 근접 메모리 연산 제품 등이 포함. 구글은 내부 데이터센터 중심으로 활용하던 TPU를 외부 구글 클라우드 고객에게 공급하면서 필요한 맞춤형 반도체 종류와 물량도 증가하는 상황
- 구글의 기존 핵심 TPU 협력사는 브로드컴. 구글은 2026년 4월 브로드컴과 2031년까지 차세대 TPU와 AI 랙 부품을 개발·공급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한 상태. 이번 계약만으로 마벨이 브로드컴의 TPU 사업을 직접 대체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TPU 주변의 연산, 네트워크, 스토리지, 메모리 반도체 공급사를 다변화하고 전체 맞춤형 반도체 조달 규모를 확대하는 성격

앤스로픽(비상장): 연환산 매출 650억 달러 돌파

- 앤스로픽의 7월 말 연환산 매출이 650억 달러를 상회. 연환산 매출은 5월 470억 달러에서 약 두 달 만에 38% 증가. 2025년 말 약 90억 달러와 비교하면 7배 이상으로 확대된 규모. 2026년 2분기 실제 매출은 115억 달러 이상으로 잠정 집계. 1분기 47억3,000만 달러보다 143% 이상 증가했고, 전년 동기 7억8,700만 달러와 비교하면 14배가 넘는 성장률. 7월의 매출 흐름을 단순 월간으로 환산하면 약 54억 달러 수준. 2분기 월평균 매출 약 38억 달러보다 크게 높아 분기 종료 이후에도 가속
- 성장의 핵심은 개발자용 코딩 에이전트 Claude Code와 기업용 API 수요.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는 사용 빈도와 토큰 소비량이 높아 반복적인 기업 매출을 창출하는 구조. 2분기에는 조정 영업이익도 처음으로 흑자 전환
- 앤스로픽은 2026년 중 IPO를 추진하기 위해 비공개 상장 서류를 제출한 상태. 기업 고객 기반과 수익성 개선이 확인되면서 오픈AI보다 먼저 증시에 입성할 가능성이 부각. 최근 자금 조달에서 평가받은 기업가치는 9,650억 달러. 현재 연환산 매출 기준으로 약 14.8배의 매출 배수가 적용된 셈
- 시장에서는 2026년 말 연환산 매출 1,000억~1,200억 달러와 2028년 매출 1,900억~2,000억 달러 수준을 기대. 상장 시 2조 달러 이상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이러한 고성장 전망의 현실화가 핵심 조건

오픈AI(비상장): 2027년까지 상장 공식화

- 오픈AI 최고재무책임자 사라 프라이어가 임직원 회의에서 늦어도 2027년에는 상장기업이 될 것이라고 발언. 사업 성장세가 계속 가속될 경우 2026년 상장 가능성도 열어둔 상황. 프라이어는 앤스로픽이 먼저 상장하더라도 문제가 없으며 각자의 속도로 진행하겠다는 입장. 구체적인 상장 시점은 실적 성장과 증시 환경에 따라 결정될 전망
- 오픈AI의 이번 분기 누적 연환산 매출은 직전 분기 말보다 35% 증가한 400억 달러 수준으로 앤스로픽에 못미침. 다만 오픈AI의 이번 분기 전체 연환산 매출 35% 증가를 단순 적용하면 약 540억 달러 수준까지 상승한 것으로 추정 가능. 기업용 사업이 50% 성장하고 있어 앤스로픽과의 격차가 다시 줄어들 가능성. AI 코딩 및 업무용 제품의 주간 활성 이용자는 2,000만 명에 도달. 2분기 실제 매출은 67억 달러로 전분기보다 18% 증가

AI/플랫폼

엔비디아(NVDA.US): 오픈AI 오하이오 8GW 데이터센터에 1,050억 달러 보증 제공

- 엔비디아가 오픈AI의 오하이오주 파이크 카운티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1,050억 달러 규모의 보증을 제공하기로 결정. 별도로 프로젝트 개발사인 SB Energy에 15억 달러를 직접 투자할 예정. SB Energy가 데이터센터를 건설·소유·운영하고 오픈AI가 20년간 임차하는 구조. 엔비디아는 AI 칩과 네트워크 장비, 데이터센터 아키텍처를 독점 공급할 예정. 초기 데이터센터 용량은 4.25GW 규모. 이후 3.75GW를 추가해 전체 캠퍼스를 최대 8GW까지 확대할 계획. 첫 번째 800MW 용량은 2028년 가동 목표. 대규모 전력 공급을 위해 최소 10GW 규모의 신규 발전설비도 함께 구축할 예정
- 1,050억 달러는 엔비디아가 데이터센터 건설비를 현금으로 직접 부담하는 투자가 아님. 실제 현금 지출은 SB Energy에 대한 투자 15억 달러에 불과. 오픈AI의 임대료와 전력비 일부, 완공된 데이터센터의 최소 잔존가치를 보증하는 조건부 금융 지원에 해당. 오픈AI가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면 SB Energy가 시설을 다른 고객에게 재임대하거나 매각하는 절차가 우선 진행됨. 이후 회수액이 약정된 최소 가치에 미달할 경우 엔비디아가 차액을 일정 한도까지 보전하는 구조
- 보증은 데이터센터가 단계적으로 완공되는 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발효될 전망. 오픈AI의 임대료 지급이 진행될수록 엔비디아의 보증 잔액도 감소하는 방식. 엔비디아의 보증을 기반으로 SB Energy가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조달할 수 있는 구조. 지분 자금은 SB Energy의 잠재적 IPO와 소프트뱅크의 직접 투자로 마련하고, 나머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과 채권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
- 초기 4.25GW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엔비디아 매출 기회는 최대 2,000억 달러로 추산. 오하이오 확장과 다른 프로젝트를 포함한 오픈AI의 엔비디아 컴퓨팅 구매액은 2030년까지 최대 6,000억 달러로 제시됨. 엔비디아 입장에서 GPU를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GPU가 설치될 토지·전력·건물을 사전에 확보하는 전략. 희소한 데이터센터 부지를 장기간 묶어두고 차세대 GPU로 반복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수요 기반을 확보하는 목적
- SB Energy와 소프트뱅크는 AEP Ohio와 함께 지역 전력망에 42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 데이터센터 건설 과정에서 2032년까지 약 3만5,000개의 건설 일자리와 2,500개의 상시 운영 일자리 창출 예상. 연방정부 소유 토지가 포함돼 있으며 미국 상무부와 에너지부도 프로젝트에 관여 중. 지역사회 사업에 8,0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해 주민 반발에 따른 인허가 지연 위험을 낮추는 구조

알파벳(GOOG.US): 마벨, 구글 TPU 생태계 진입

- 마벨과 구글이 맞춤형 반도체 개발 협력을 확대. 마벨은 구글에 자사 주식 최대 5,897만907주를 주당 206.58달러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전량 행사 시 구글이 지급하는 총매입대금은 약 121억8,000만 달러. 전체 주식 중 136만867주는 계약 체결 후 1년 동안 분기별로 균등하게 권리 확정. 나머지 약 5,761만주는 구글의 마벨 제품 구매실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권리 확정. 구매실적 연동 물량은 총 240개 구간으로 분할. 마벨이 구글 관련 맞춤형 제품 매출 5억 달러를 인식할 때마다 한 구간의 주식매수권이 확정되는 방식. 모든 주식매수권이 확정되려면 구글 관련 누적 맞춤형 반도체 매출이 약 1,200억 달러에 도달해야 하는 구조. 측정 기간은 마벨의 2027회계연도 3분기부터 2033회계연도 말까지
- 협력 범위는 구글 TPU 생태계에 연결되는 맞춤형 반도체 전반. AI 추론 가속기와 스토리지 제어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제어기, 메모리 인터페이스 제어기, 근접 메모리 연산 제품 등이 포함. 구글은 내부 데이터센터 중심으로 활용하던 TPU를 외부 구글 클라우드 고객에게 공급하면서 필요한 맞춤형 반도체 종류와 물량도 증가하는 상황
- 구글의 기존 핵심 TPU 협력사는 브로드컴. 구글은 2026년 4월 브로드컴과 2031년까지 차세대 TPU와 AI 칩 부품을 개발·공급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한 상태. 이번 계약만으로 마벨이 브로드컴의 TPU 사업을 직접 대체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TPU 주변의 연산, 네트워크, 스토리지, 메모리 반도체 공급사를 다변화하고 전체 맞춤형 반도체 조달 규모를 확대하는 성격

아마존(AMZN.US): 절판·희귀 서적 스캔하며 AI 학습용 고품질 데이터 확보

- 아마존이 중고시장에 나온 절판 서적과 희귀 서적을 대량 구매해 디지털화하는 작업 진행 중. 책등을 절단한 뒤 낱장을 고속 스캐너에 투입하기 때문에 원본 서적은 복구하기 어려운 상태로 파괴됨. 아마존은 상업적 유통망을 통해 책을 구매하고 있으며 이를 고객이 사용하는 제품과 서비스 개선에 활용한다고 설명. 구체적으로 어떤 AI 모델과 데이터셋에 투입되는지, 전체 수집 규모가 얼마인지는 공개하지 않은 상태
- 실물 서적이 필요한 이유는 인터넷에 존재하지 않는 텍스트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 절판됐거나 전자책으로 출시되지 않은 책은 기존 웹 크롤링으로 수집하기 어려운 고품질 데이터에 해당. 특히 2022년 이전에 출간된 서적은 생성형 AI가 작성한 문장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사실상 없음. 인간이 작성한 원본 텍스트만으로 구성된 깨끗한 학습 데이터라는 점에서 가치가 높아지는 구조. AI 생성물을 다시 AI가 반복 학습하면 문장과 정보의 다양성이 줄어들고 오류가 증폭될 수 있음. 이를 모델 붕괴라고 하며 AI 기업들이 생성형 AI 확산 이전의 책과 문서를 확보하려는 핵심 배경

메타(META.US): 청소년 중독 설계 재판 개시

- 미국 29개 주 법무장관이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청소년 안전 및 개인정보보호 재판이 캘리포니아주 오كل랜드 연방법원에서 시작. 소송은 2023년 제기됐으며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켄터키, 뉴저지가 대표로 변론을 담당. 29개 주 전체는 메타가 부모 동의 없이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해 COPPA(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를 위반했다고 주장. 대표 4개 주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안전성을 허위로 설명해 각 주의 소비자보호법도 위반했다고 주장. 메타가 청소년 이용자의 불안과 우울증, 신체 이미지 왜곡, 수면 부족 등 위험을 인지하고도 이를 이용자와 부모에게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 정부 측 주장. 이용시간이 늘어날수록 광고 노출과 개인정보 수집이 확대되는 사업모델이 안전조치보다 우선했다는 논리
- 핵심 쟁점은 이용자가 올린 유해 콘텐츠가 아니라 메타가 직접 설계한 플랫폼 기능. 무한 스크롤과 자동재생, 좋아요, 푸시 알림, 개인화 추천 등이 청소년의 충동 조절 취약성을 이용해 이용시간을 늘리도록 설계됐다는 논리. 메타가 청소년의 뇌 발달과 보상 반응을 연구한 뒤 이를 제품 설계와 광고사업에 활용했다는 주장도 제기. 내부 문서에 청소년 이용시간 확대가 목표로 제시됐으며 인스타그램을 악물에 비유한 직원 표현도 증거로 활용될 예정
- 메타는 소셜미디어 사용과 청소년의 정신건강 악화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 소셜미디어 중독이 공식적인 정신질환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일부 청소년에게는 플랫폼 사용이 긍정적인 효과도 제공한다고 주장. 13세 미만 사용자 식별과 연령 확인은 소셜미디어 업계 전체가 겪는 기술적 문제라고 주장. 각 주 소비자가 메타의 설명에 실제로 속았다는 증거도 부족하며 청소년 보호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는 입장
- 주 법무장관 측이 현실적인 제재 규모로 제시한 금액은 약 2,000억 달러. 이는 메타의 세후이익 약 3년치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소비자보호 사건 기준으로 전례가 없는 수준. 다만 이번 재판은 피해자의 손해를 보전하는 일반적인 손해배상 사건이 아님. 민사 제재금과 부당하게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반환, 동일 행위 재발을 막기 위한 억제조치가 핵심. 최종 금액은 법원이 인정하는 위반 행위와 대상 이용자 수, 위반 기간, 각 주법의 제재 기준에 따라 별도로 산정될 예정
- 이번 사건에 앞서 뉴멕시코주는 메타의 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3억7,500만 달러 평결을 확보. 이후 청소년 정신건강 피해 완화금 5억6,700만 달러가 추가돼 총제재 규모가 9억4,200만 달러로 확대됐으며 메타는 항소 방침. 뉴멕시코주의 인구가 약 200만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동일한 법리와 제재 산식이 캘리포니아 등 대형 주에 적용될 경우 금액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 뉴멕시코 판결이 다른 주의 소송 전략에 선례를 제공한 상황
- 금전적 제재보다 사업모델에 미칠 영향이 더 큰 변수. 주 정부는 미성년자 대상 좋아요 표시와 무한 스크롤, 자동재생을 제한하고 이용시간 상한과 연령 확인을 강화하도록 요구. 복수 계정과 사라지는 게시물, 이미지 필터, 야간 푸시 알림 등 청소년의 반복 이용을 유도하는 기능도 개편 대상. 13세 미만 이용자를 탐지하고 차단하는 시스템과 부모 확인 절차 강화도 요구되는 상황
- 재판은 약 6주간 진행될 예정이며 마크 저커버그와 인스타그램 책임자 아담 모세리가 증언할 가능성이 있음

테슬라(TSLA.US): 8월 Cybercab 상용 투입 추진

- 테슬라가 2026년 8월 중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Cybercab을 공개 운행할 준비 진행 중. 우선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공도로에서 승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일 후 기존 로보택시 서비스에 투입할 계획. Cybercab은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2인승 완전자율주행 전용 전기차. 기존 Model Y를 개조한 로보택시와 달리 처음부터 사람의 운전을 전제로 하지 않은 별도 차량 플랫폼. 테슬라는 6월부터 Cybercab 양산형 차량을 공공도로에서 시험 중. 다만 실제 목격된 시험차 중 상당수에는 운전대와 페달이 장착돼 있으며 완전 무인형 차량은 7월부터 테슬라 사유지에서 주로 테스트한 상태. 오스틴 소방과 경찰 등 긴급구조 인력을 대상으로 사고 발생 시 Cybercab을 이동시키는 훈련도 완료. 차량 출시 행사도 예고했으며 기존 Model Y 로보택시 이용자 가운데 행사 참석자를 선정할 계획
- Cybercab은 테슬라의 FSD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운행. 문제는 현재 소비자용 FSD의 공식 명칭이 FSD Supervised이며 운전자의 지속적인 감독을 요구한다는 점. Cybercab에는 운전대와 페달이 없어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생해도 탑승자가 직접 개입할 수 없음. 기존 FSD에서 완전 무인 운행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별도의 안전 검증이 필요한 구조. 테슬라는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원격 운영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고 설명. 다만 통신 신호가 끊기거나 지연될 경우 즉각적인 원격 개입이 어려울 수 있어 일부 Cybercab에 스타링크 장비를 추가하는 작업 진행 중
- 테슬라 로보택시 서비스는 지역에 따라 무인 차량과 안전요원이 탑승한 차량을 혼합 운영 중. 비공식 집계 기준 완전 무인 차량은 오스틴 16대, 댈러스 4대, 휴스턴 1대 수준. 테슬라의 완전 무인 로보택시 누적 주행거리는 6개 도시와 2개 주에서 약 38만마일. 웨이모의 공공도로 완전 무인 누적 주행거리 2억2,000만마일 대비 약 579분의 1 수준. 기존 테슬라 차량 수백만대에서 수집한 주행 데이터가 Cybercab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도 아님. Cybercab은 차체 크기와 좌석 위치, 센서 배치, 회전 특성이 다른 별도 플랫폼이어서 전용 주행 데이터 축적 필요. 테슬라도 Cybercab을 대규모 투입하기 전에 해당 차량에 특화된 데이터를 더 확보해야 한다고 인정. 8월 출시는 본격적인 대량 상용화보다 제한된 차량을 활용한 초기 실증 단계에 가까운 상황
- Cybercab의 운전대와 페달 부재는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과도 충돌. 미국에서 차량을 대량 생산하거나 일반 고객에게 판매하려면 운전대와 페달, 사이드미러 등을 요구하는 일부 안전기준의 면제 필요. 테슬라가 Cybercab에 대한 연방 안전기준 면제를 신청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 면제 없이도 제한된 시험운행은 가능하지만 수천대 규모의 상용 배치와 일반 소비자 판매에는 제약 발생 가능

앤스로픽(비상장): 연환산 매출 650억 달러 돌파

- 앤스로픽의 7월 말 연환산 매출이 650억 달러를 상회. 연환산 매출은 5월 470억 달러에서 약 두 달 만에 38% 증가. 2025년 말 약 90억 달러와 비교하면 7배 이상으로 확대된 규모. 2026년 2분기 실제 매출은 115억 달러 이상으로 잠정 집계. 1분기 47억3,000만 달러보다 143% 이상 증가했고, 전년 동기 7억8,700만 달러와 비교하면 14배가 넘는 성장률. 7월의 매출 흐름을 단순 월간으로 환산하면 약 54억 달러 수준. 2분기 월평균 매출 약 38억 달러보다 크게 높아 분기 종료 이후에도 가속
- 성장의 핵심은 개발자용 코딩 에이전트 Claude Code와 기업용 API 수요.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는 사용 빈도와 토큰 소비량이 높아 반복적인 기업 매출을 창출하는 구조. 2분기에는 조정 영업이익도 처음으로 흑자 전환
- 앤스로픽은 2026년 중 IPO를 추진하기 위해 비공개 상장 서류를 제출한 상태. 기업 고객 기반과 수익성 개선이 확인되면서 오픈AI보다 먼저 증시에 입성할 가능성이 부각. 최근 자금 조달에서 평가받은 기업가치는 9,650억 달러. 현재 연환산 매출 기준으로 약 14.8배의 매출 배수가 적용된 셈
- 시장에서는 2026년 말 연환산 매출 1,000억~1,200억 달러와 2028년 매출 1,900억~2,000억 달러 수준을 기대. 상장 시 2조 달러 이상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이러한 고성장 전망의 현실화가 핵심 조건

오픈AI(비상장): 2027년까지 상장 공식화

- 오픈AI 최고재무책임자 사라 프라이어가 임직원 회의에서 늦어도 2027년에는 상장기업이 될 것이라고 발언. 사업 성장세가 계속 가속될 경우 2026년 상장 가능성도 열어둔 상황. 프라이어는 앤스로픽이 먼저 상장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며 각자의 속도로 진행하겠다는 입장. 구체적인 상장 시점은 실적 성장과 증시 환경에 따라 결정될 전망
- 오픈AI의 이번 분기 누적 연환산 매출은 직전 분기 말보다 35% 증가한 400억 달러 수준으로 앤스로픽에 못미침. 다만 오픈AI의 이번 분기 전체 연환산 매출 35% 증가를 단순 적용하면 약 540억 달러 수준까지 상승한 것으로 추정 가능. 기업용 사업이 50% 성장하고 있어 앤스로픽과의 격차가 다시 줄어들 가능성. AI 코딩 및 업무용 제품의 주간 활성 이용자는 2,000만 명에 도달. 2분기 실제 매출은 67억 달러로 전분기보다 18% 증가

글로벌 전력기기/에너지

Vineland Phase 2 승인 완료

- 2025년 9월 네비우스(NBIS)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뉴저지주 Vineland에 위치한 신규 데이터센터에서 전용 GPU를 제공하는 AI 인프라 계약을 체결
- 2025년 말부터 서비스 공급을 시작해 2027년까지 최종 완공하는 것을 목표
- 2026년 5월 네비우스는 블룸에너지와 파트너십을 체결. 1차 프로젝트는 328MW 규모로 올해 안에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최근 연료전지가 왕복엔진을 대체하며 프로젝트 가시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고 평가
- 다만 대기오염 및 소음, 물 사용 관련 주민 반발로 인해 Vineland 시는 부지 배치 계획 수정안에 대해 공청회를 진행. 8월 17일 열린 공청회에서 왕복엔진과 가스터빈을 블룸에너지의 연료전지로 전환하는 부지 계획은 8:1로 승인

펜실베이니아도 계통 신규 규제를 공개

- 데이터센터 규제는 최근 주, 지방 차원과 연방 차원에서 동시에 진행 중. 기본적으로 부지 선정, 인허가, 건설, 요금 등의 권한은 주 및 지방정부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고 대규모 전력 사용자(데이터센터)의 송전 설비 연결 사안에 대해서는 연방(FERC)에서 담당
- 현재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공통적인 규제 방향은 계통 신규 연결 자체를 막거나(뉴욕, 미시간), 지역 승인이나 환경 심사 등으로 통해 추가적인 절차를 부담하는 규제(유타)를 신설하고 있다는 점
- 8월 18일, 펜실베이니아주도 데이터센터 규제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새로 공개. 새로운 전력 생산과 송전, 배전에 대한 모든 비용을 가정이 아닌 데이터센터 개발사에서 지불해야 하며 물 절약에 대한 요건을 추가

온사이트 도입 논리는 납기에서 수용성으로 확대되는 중

- 네비우스는 2026년 5월 파트너십 계약서에서 블룸에너지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빠른 전력 확보와 사실상 무공해에 가까운 기술, AI 워크로드의 극한 성능 요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을 언급. 블룸에너지의 연료전지는 연소 없이 전기를 생성해 물 사용량이 최소화.
- 또한 연료전지는 일반적으로 연소 기반 발전 방식 대비 인허가 부담이 가벼워 부지 선정부터 가동까지의 일정을 단축시키므로 납기의 기준에서도 선순환이 가능.
- 여전한 주민 반발이 있지만 터빈과 왕복엔진 대비 상대적 우위로 결국 승인이 진행되었다고 판단
- 2025년 계통 연계 지연이 부각되며 '납기'의 관점에서 온사이트를 주목했다면 2026년에는 비용 전가가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공해가 적어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데이터센터 발전원으로서 온사이트 도입의 근거가 늘어나고 있어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재임, 김시현)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8월 21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재임, 김시현)는 2026년 8월 21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